

3000여개 통발 얽히고설켜 밤샘 수색 난항

기관실 물 들어와 선체 뒤집힌듯 3명 내부·6명 외부서 표류 가능성 민간 선박까지 총동원 구조 온힘 선체 인양작업 위해 크레인선 투입

신안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실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구조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상의 이유로 기관실 구멍

구조된 선원들은 기관실에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순식간에 배가 뒤집혀 전복됐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부 충돌 정황은 없었으나 미상의 이유로 기관실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면서 선체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실종선원 대부분이 선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여러 선원들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실종자들이 선체 외부(갑판 등)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신안을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시 기관실 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갑판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실종자) 대부분이 선체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브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목포 산정동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신안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선적 청보호(24톤) 실종자 가족과 구조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핑을 통해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나머지 실종자 9명 중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크레인을 동원해 금일 저녁에 사고 선박을 인양, 선내 수색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크레인선은 이날 오후 2시7분께 신안 암태도에서 출발해 오후 8시20분께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해경은 “내부수색 진행도에 따라 야간

에 인양작업을 바로 개시할지 등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물 막혀 선체진입 난항

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어선 내부를 수색하려 했으나 3000여개의 통발이 얽히

고 설켜있어 선실 내부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수면 위로 나온 선체 바닥에 구멍을 뚫어 진입하려 했지만 각종 장애물에 막혀 난항을 겪고있다.

해경은 신속하게 통발을 자르고 내부 수색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까지 선체 내 조타실, 침실, 화장실 등을 살폈지만 별다른 반응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해경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외부로 탈출했을 실종자들의 소재 파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선체에서 이탈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조선과 관공선은 물론 민간 선박 등을 총동원한 수색에 나선다.

사고 후 투입된 구조 동원세력은 총 34척으로, 해경 경비함정 26척, 해군 함정 3척, 관공선 3척, 민간선박 2척과 해경 항공기 5대, 군 항공기 3대 등이다. 또한 해경은 승선원 명부를 확보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신안군과 협조를 통해 신안군수협 대강당에 사고수습대책 본부를 마련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신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람·김혜인 기자

“이번만 배 타고 기술 배워보겠다 약속했는데...”

효자 아들·30년 베테랑 기관사... 안타까운 '청보호' 실종 선원들

“이번까지만 배 타고, 앞으로 기술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신안 임자도 해상에 사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5일 청보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목포시 신안군수협 회의실을 찾은 이모(75)씨는 애가 타는 듯 꺾진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두달 전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아

안정이 필요한 상태지만, 전복된 청보호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이곳을 찾았다.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사라졌다는 아들 이씨(45)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에 종사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4~5년 전부터 뱃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외국으로 이민 간 친형이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아버지 홀로 두고 갈 수 없

다’며 부친 곁을 지켜왔다. 이씨의 부친은 아들에게 위험한 뱃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여러차례 권했고,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아들 역시 “이번만 타고 안 타겠다”고 약속했다.

이씨의 부친은 “지난 설 명절 아들이 이번을 끝으로 더는 배를 타지 않다고 약속했는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며 “큰아들은 이민을 갔고, 이제 이곳에 혈육이라곤 하나 남았다. 아들이 잘못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실종자 중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

관사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올해까지만 뱃일을 하고 내년부터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약속한 것이 었고 인데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의 가족들은 울먹이며 말문을 열지 못했다.

A씨의 아내는 “진도에 입항했다는 남편의 전화가 마지막이었다”며 “남편은 30여년 넘게 배를 타 왔다. 평소와 같이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다니 믿기 싫었다”며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안한 삶을 보낼 일만 남았는데. 이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어디있느냐. 남편이 무사히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 당국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조된 3명은 이날 오전 사고해역에서 목포해경전용부두로 들어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부축을 받으며 하산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부두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재회한 가족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쏟아냈다.

한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구조된 선원은 “괜찮다”며 힘겹게 답하기도 했다. 구조된 선원 3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안정을 되찾으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2022-2023년
“꽃” 축제도시 무안-달랏 직항

달랏 (직항)

999,000원~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

vejetall.com
[양국정부인가조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항공운항예정시간

무안-달랏 10:00-13:05 / 달랏-무안 01:50-08:30

(백투백3박5일)

달랏 관광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999,000~

달랏 골프 - 54H 3박 5일

4성급 품격 [특리]

1,099,000~

달랏 골프 - 54H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1,499,000~

달랏 골프 - 54H 3박 5일

4성급 품격 [특리]

1,599,000~

달랏-트래킹, 무이네, 나트랑 관광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999,000~

달랏-트래킹, 무이네, 나트랑 관광 3박 5일

5성급 품격 [특리]

1,099,000~